

## 대안적 학술지의 탄생과 발전 방안

- 크레이그 슬래틴 『New Solutions』 前 편집장과의 대담 -

허현희\*†, 김민경\*\*

**참석:** 크레이그 슬래틴(Craig Slatin) 메사추세츠 주립대 명예교수,

김명희 前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학회장,

김성이, 전보영 한국건강형평연구 편집위원,

김민경 한국건강형평연구 편집 간사

**진행:** 허현희 한국건강형평연구 편집장

**일시:** 2022년 11월 11일

**장소:** 온라인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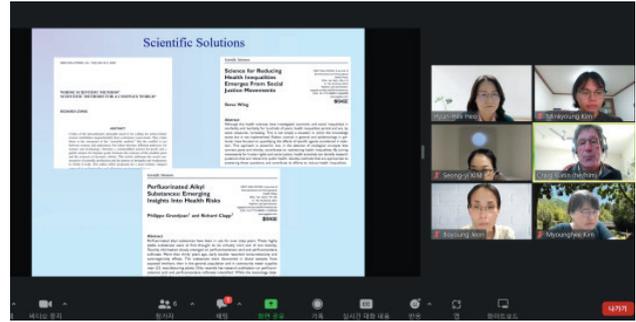
### 들어가며

『뉴 솔루션스(New Solutions, 이하 NS)』는 미국에서 1990년 5월 창간했으며, 노동 현장 활동가와 연구자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든 대안적 학술지였다. 발간 초기 발행인과 편집인은 미국의 노동운동이 제도 내에 정착하기 위해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NS 학술지의 역할이라고 기대했다.

『뉴 솔루션스(New Solutions, 이하 NS)』의 前 편집장이었던 크레이그 슬래틴(Craig Slatin)은 메사추세츠 주립대 명예 교수이며, 주 연구 분야는 노동안전보건 정책, 기후 변화, 환경 정의 등이다. 메사추세츠 교사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활동을 했으며, 대학 교수직을 은퇴한 후에도 노조 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본 원고는 슬래틴 교수와 『한국건강형평연구』 편집장 및 편집위원,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전 학회장 등이 온라인 회의를 통해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슬래틴 교수는 이 대담에서 NS 학술지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 대해 상세히 논하고, 『한국건강형평연구』의 창간을 축하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미래건강연구소 연구교수, †교신저자(healthheo@gmail.com)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 『뉴 솔루션스』: 과학, 정책, 정치적 맥락을 담은 학술지의 탄생과 성장

### 편집위원회: 『뉴 솔루션스(NS)』의 창간 배경과 과정은 어떠했나요?

#### 크레이그 슬래틴:

NS는 1990년 5월 석유, 화학 및 원자력 노동조합(Oil, Chemical & Atomic Workers International Union, 이하 OCAW)에서 창간한 학술 저널이었어요. 창간호 발행인은 OCAW의 사무총장이었던 안토니 마조치(Anthony Mazzocchi)였는데 미국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건을 옹호했고 산업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된 후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의 직업환경보건정책 교수였던 찰스 레벤스타인(Charles Levenstein)<sup>1</sup>이 토니<sup>2</sup>와 함께 초대 편집인으로 일했습니다.

### 편집위원회: 학술지를 처음 창간하면 저자를 확보하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하셨나요?

척<sup>3</sup>과 토니는 초기 저널의 저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계와 사회정의 운동단체로 이뤄진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했어요. 예를 들면,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산업보건 및 안전 분야 연구자 및 활동가, 노동환경운동 네트워크, 산업안전보건연합(Council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SH), 노동조합 등 다양한 전문 단체, 연구자, 활동가들과 협력했어요. 또 스칸디나비아,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네트워크 등 국제 단체와 연대하여 저자를 발굴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 편집위원회: 창간 초기 관심사는 무엇이었나요? NS의 비전과 편집 방향성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 크레이그 슬래틴:

창간 당시 토니는 노동과 환경운동의 공통 분야를 찾기 원했고, 척은 보건학자들과 전문가들이 활동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좋은 과학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둘은 NS 학술지가 과학자와 지역사회 리더, 보건의료 전문가와 노조 활동가, 사회 문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그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가 되기를 희망한다

1 찰스 레벤스타인(Charles Levenstein)은 매사추세츠 주립대 로웰 캠퍼스(UMass Lowell) 보건대 명예교수이다. 연구 분야는 직업성 질환과 손상의 정치경제학, 노동자 건강 문제의 국제 비교, 통합적인 건강증진 접근법, 노동 환경 정의, 직업보건의 역사와 윤리,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실천적 성격의 노동안전보건 학술지 『뉴 솔루션스(New Solutions)』 초대 편집인이자 국내에서도 번역되었던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2008)’의 공저자이다.

2 안토니 마조치의 애칭

3 찰스 레벤스타인의 애칭

---

고 했어요. 그 고상한 목표를 달성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편집위원회: 창간 초기에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크레이그 슬래틴:**

노조가 발행인이었던 초창기에는 모든 원고를 동료 심사를 통해 과학적 가치를 검토하고, 일반인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명의 일반인 사독 위원이 검토하도록 했는데 완벽하게 진행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학자는 아니지만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동료 심사에 참여하도록 했고 이것이 학술지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토니는 노조를 참여시키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질 못했고, 노조 조합원들이 학술지를 읽게 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었지요. 하지만 학술지가 활동가와 연구자들을 위한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은 갈수록 더 분명해졌어요. 즉, 학계나 기관에서 일터와 환경,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정의 운동에 동참하는 연구자들이 기존의 과학 저널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출판하고 싶을 때 NS를 통해 발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NS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에 대해 글을 쓰고 읽는 사람들의 플랫폼이 되었지요.

**편집위원회: 학술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원고 유형별 구성 방식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크레이그 슬래틴:**

동료 심사를 거친 ‘특집 논문’, ‘과학적 해결책 (Scientific Solutions)’ 등 연구 논문도 있지만, ‘실천적 해결책(Movement Solutions)’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중재 방안에 대한 논의와 현장 실천에 관한 내용이 더 많아요. ‘보이스(Voices)’라고 하는 원고는 주로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데요. 활동가들이 바쁘고 글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학술지에 실릴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에요. 사회정의 운동에 대해 잘 몰랐던 연구자들이라도 논문 검색을 하다가 NS에 실린 인터뷰 원고를 읽고 노동자, 활동가, 지역민, 정책입안자 등의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하고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밖에도 논평 및 논쟁, 책이나 영화 리뷰 등 다양한 형태의 원고를 담아 발행하고 있어요. 이미 출판되었더라도 독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서, 보고서, 역사적 논문 등은 게재 허가를 받아 신기도 합니다.

**편집위원회: 미국이나 국제적 맥락에서 특정 의제를 다루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크레이그 슬래틴:**

특별 호를 통해 특정 주제와 관련된 여러 논문을 모아 학술지를 구성하거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35건이 넘는 특별 호가 발간되었어요. 특별 호 발간의 장점은 발행할 때 게스트 편집자가 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편집인이 가끔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웃음). 최근 발행했던 특별 호에서는 국제적 비공식 경제의 노동자에 대한 주제를 다룬 바 있어요. 비공식 경제 분야의 여성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논의를 WIEGO<sup>4</sup>와 함

---

4 WIEGO(Women in Informal Employment: Globalizing and Organizing)는 맨체스터에 기반을 둔 글로벌 리서치 정책 네트워크로서 비공식 경제 부문의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비공식 경제 부문의 노동자 단체, 연구자 및 개발 전문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WIEGO 네트워크는 1997년 이탈리아 벨라지오에서 열린 비공식 경제 전문가 회의에 이어 10명의 활동가, 연구자 및 개발 실무자 그룹에 의해 설립되었다. 창립자 중에는 하버드 공공정책 강사이자 현재 네트워크의 수석 고문인 Martha Chen 교수가 포함되어 있고, 창립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인

---

께 다루었어요. 논문 게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고 네트워크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시급성이 더욱 강해졌어요.

**편집위원회: NS가 현재의 학술지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창간 이후 여러 발전 단계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크레이그 슬래틴:**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1990년 창간 당시 NS는 노조가 출판비용을 지원하는 구독형 학술지였어요. 초대 편집인이었던 척을 대학에서 지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되었어요. 두 번째 단계는 1998년 노조의 상황이 바뀌면서 척은 NS를 소규모 출판사인 베이우드 퍼블리싱에 팔아 출판 비용을 충당했고 적극적으로 구독자를 모집했어요. 그 덕분에 구독자가 약 400~500명에 이르렀어요. 2000년대 초, 척과 토니는 NS를 메타프레스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어 온라인 출판을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학자가 종이 대신 온라인 학술지를 이용했기 때문이었죠. 초기에는 PubMed/Medline에 색인되지 못해 논문을 노출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니즈에 맞출 수 없어 큰 시련을 겪었어요. 하지만, 2007년부터는 색인된 문헌 정보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 번째 단계는 대형출판사에서 학술지를 인수한 시기인데요. 2015년부터 대형출판사인 SAGE와 함께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많은 대학에서 SAGE를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도서관의 무료 접속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NS를 읽게 되었어요.

**학술지 온라인 출판 방식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와**

**도전과제**

**편집위원회: 온라인 출판으로 전환하면서 NS는 어떠한 변화를 겪었나요?**

**크레이그 슬래틴:**

온라인 출판이 주가 되면서 독자들은 학술지 자체를 찾아 읽기보다는 문헌 검색을 통해 선택한 논문만 읽게 되었어요. 학술지의 이슈(호)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제에 대한 편집인의 글이나 다른 논문은 읽지 않는 거죠. 독자들은 누구나 무료로 논문을 읽을 수 있도록 오픈 액세스를 원하고 있어요. 대학도서관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논문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지만, 대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유료로 구독하거나 논문을 구입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SAGE는 대다수의 출판사와 마찬가지로 오픈 액세스를 원하는 저자에게 약 3천 달러를 청구하고 있어서 저자들에게 부담이 되죠. 논문 게재료 지원을 받기 위해 저자들은 지원기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사회정의 운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가는 대학 무료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거나 논문을 구매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출판은 이들에게 장벽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학회지를 출판할 수 있는 무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편집위원회: 학술지 출판 방법과 학계 상황의 변화로 인해 대안적 학술지의 발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었는지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크레이그 슬래틴:**

---

도의 인권 지도자 Dr. Ela Bhatt였다. 주요 활동은 가사 노동자, 노점상, 청소부 등 다양한 비공식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노동환경 조건 개선, 사회보장정책 제안 등을 지원한다.

---

---

현재 NS는 톰슨 로이터의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이하 IF) 순위를 받지 못했어요. 사실상 IF는 출판사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비즈니스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저널은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IF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SAGE는 무료인 다른 종류의 IF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임기 보장이나 승진을 위해 IF가 큰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야 하는 초기 경력 연구자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부담될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더 이상 이런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시니어 교수조차 연구비 지원 기관의 주목을 받지 못할까 봐 IF 순위가 높은 학술지에만 게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해서 몇 점 깎아버리면 저자들도 우리 학술지를 찾지 않게 되죠. 안타까운 도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색인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리 학술지를 존중하는 학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편집위원회: 현재 NS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은 무엇인지요?**

**크레이그 슬래틴:**

우리에게는 돈을 받지 않거나 아주 적게 받는 자원 봉사 편집인과 편집팀이 항상 필요해요. 제가 은퇴한 후 저보다 훨씬 유능한 편집장이 일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학회지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학술지는 학제 간, 학제 초월적 연구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요. 저자들은 인정받기 위해 해당 학문의 이론적 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배경 이론을 복잡하게 서술하여 일반 독자나 해당 학문 영역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논문을 읽기 매우 어려워요. 저는 연구자들에게 ‘나도 이해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동료

심사 과정은 엄격해야 해요.

**편집위원회: 동료심사 과정에서 3명의 사독위원을 두신다고 했는데, 그 중 한 명은 일반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학계가 아닌 일반인을 사독위원으로 섭외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

**크레이그 슬래틴:**

노동자 건강에 관한 논문이라면 노조원이나 노조의 보건 및 안전 담당자가 사독을 할 수 있도록 의뢰해요. 지역사회 환경 보건에 관한 논문이라면 환경단체 활동가나 담당자를 사독위원으로 섭외하고요. 때로는 대학원생들에게 사독을 의뢰하기도 해요. 저는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그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 다른 전공 분야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사독 과정을 통해 저자에게 환류하려고 합니다.

**『한국건강형평연구』의 미래**

**편집위원회: 『한국건강형평연구』 역시 NS처럼 학계와 보건의료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요. 보건, 의료, 사회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노조 활동가, 시민사회 활동가의 목소리도 담을 계획인데요. 하지만, 학계와 현장의 관점과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학술지 내에서 조화롭게 정리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편집장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크레이그 슬래틴:**

건강불평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논문도 있겠지만 건강불평등이 팽배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원고는 같은 주제에 대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독자들이 건강불평등이라는 주제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

기 때문이지요. 저는 ‘보이스’ 원고의 경우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이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함께 작업했어요.

**편집위원회:** 말씀을 듣다 보니 NS를 학계와 실천 영역을 연결하는 창의적인 플랫폼으로 운영하셨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제목처럼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는 혁신적인 학술지이군요.

**크레이그 슬래틴:**

고마워요. 하지만 척과 저는 이런 농담을 많이 해요. 실제로 새로운 해결책에 대한 글은 그리 많지 않고 오래된 문제에 대한 글이 더 많다고 말이죠. 자본가들이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데 너무 능숙해졌기 때문이죠.

**편집위원회:** 편집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논문이나 정책 변경 등을 이룬 사건이 있었는지요?

**크레이그 슬래틴:**

온타리오 병원 노조 위원회가 참여했던 논문이 기억납니다. 연구 결과는 온타리오의 보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정부로부터 노조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언론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또 스코틀랜드의 환경 및 산업 보건연구자인 앤드류 와터슨이 참여한 논문이 게재되었을 때 청문회에서 더 나은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었어요. 논문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노동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는 과학적 논문이 있으면 정책입안자나 기관 관료에게 발표할 때, 노조와 지역사회 등과 연대를 맺을 때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논문 발표 후 사회운동이나 실천과 연결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편집위원회:** 이전 세대는 학생운동, 노동조합운동, 지역사회 활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정치적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어 그러한 인적 네

**트위크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이런 세대를 계승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학문적 계승 활동이 있는지 궁금해요.**

**크레이그 슬래틴:**

많은 사람들이 활동가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도울 것인가 생각합니다. 창간호 발행인이었던 토니는 의과대학을 돌아다니며 직업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찾아 그들이 노조 현장에서 보건 및 안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미국 산업 및 환경보건 분야의 진보적인 리더들은 대부분 그 프로그램을 거쳤어요. NS는 인턴십 프로그램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인턴십 내용을 ‘실천적 해결책’으로 작성하거나 ‘보이스’ 원고로 게재해요.

**편집위원회:** 마지막으로 『한국건강형평연구』의 미래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크레이그 슬래틴:**

NS가 실제로 알려지고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게 될 때까지 약 5년이 걸렸어요. 학술지에 자발적으로 논문을 게재하거나 학술지를 홍보하는 사람을 찾게 될 것이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한국건강형평연구』는 연구자, 정책 입안자, 지역사회 조직,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리소스가 될 것입니다. 한국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학술지로 자리매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세요. 행운을 빕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1년 뒤 성공담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끝>